

기업윤리 브리프스

10호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www.acrc.go.kr에서 “기업윤리”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전문가 칼럼

윤리경영은 가치체계의 전환에서 출발한다.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양혁승 교수

윤리경영이 기업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되는 시대가 되었다. 공급자중심의 시장이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고 정보통신 인프라의 획기적 발전으로 정보의 확산속도가 크게 빨라졌다. 그 결과 소비자의 윤리적 판단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기업은 소비자의 못매를 맞아가 하면 윤리적 평판이 좋은 기업은 소비자의 적극적 지원을 받는 환경이 되었다. 영속적으로 발전해온 기업들의 공통점 중 하나도 높은 가치기준에 입각한 윤리경영을 실천해왔다는 점이다.

윤리경영은 가치체계의 전환으로부터 시작된다. 윤리경영은 기업 경영에서 어떠한 가치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느냐의 문제이며, 그것의 본질은 곧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그룹 중 누구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느냐의 문제와 맞닿아 있다. 전통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주주의 이익에 최우선 순위를 부여해왔다. 기업의 존재목적 하면 '이익극대화'라는 말이 사회구성원들의 입에서 반사적으로 튀어나오는 것도 그러한 배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러한 가치체계 하에서는 소비자, 조직구성원, 사회구성원들의 이익은 후순위로 밀리게 되고 그들은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 봉사하는 수단적 위치에 머물게 된다. 비윤리적 경영행태의 뿌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

반면,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들의 가치체계는 다르다. 그러한 기업들이 최우선 순위로 내세우는 가치는 소비자, 사회구성원, 조직

구성원 등의 삶의 질 향상이다. 주주의 이익보다 여타 이해관계자 그룹의 이익을 앞세운다. 설립 이래 지난 40여 년 동안 뛰어난 경쟁력을 유지해온 미국 사우스웨스트 항공사는 고객의 필요충족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외부고객 만족은 내부고객 만족으로부터”라는 모토로 기업을 운영해왔다. 의료계의 최선두에 서있는 미국 메이요 클리닉도 “환자의 필요를 최우선으로”라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20세기 경영철학의 대부로 인정받은 피터 드러커도 이익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소비자의 필요 충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한 대가로서 이익은 뒤따라오는 것으로 이해해야지 우선순위를 뒤집어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앞세우면 정상적 기업운영이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시대적 요구로 자리매김 된 윤리경영은 간헐적 불우이웃돕기 행사 참여나 기부 등의 활동을 통해 기업의 윤리적 이미지를 높이려는 표면적 노력에 의해 구현될 수 없다. 그러한 노력은 윤리경영 자체를 수단화하여 이익을 극대화 해보려는 비윤리적 접근법이라 할 수 있다. 윤리경영과 그에 기반한 경쟁력 향상은 사회구성원들의 필요충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직을 운영할 때 구현되는 열매이다.

내부 인식도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 소통 방법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기업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업 내부의 소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매년 분기별로 워크숍을 개최하여 임직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윤리의식을 능동적으로 고양시키는 계기를 마련하고 아울러 임직원들 사이에서 윤리의식을 공유시키고 소통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SNS를 활용하는 등 임직원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하여 기업 내 윤리경영 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윤리경영 소통을 위한 기업 사례

기업명	내용
한국남동발전	청렴윤리체험 워크숍 : 청렴도 향상 및 윤리적 딜레마 해결을 위해 담당 임직원들이 참여하여 서로 소통함
포스코	신윤리경영 선포식 :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더불어 상생, 발전하는 소통 경영을 위해 포스코경영연구소(POSRI)에서 학계 및 경영계 등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윤리경영 오픈 포럼'을 키워나가기로 선포
로레알 그룹	2013 세계 최고 윤리 기업 명단에 선정 : 유엔글로벌콤팩트(UN Global Compact)에 가입하였으며, 매년 윤리의 날을 마련해 전 세계 최고경영자(CEO)와 직원들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

☞ 2면에서 계속됩니다.

소통을 통한 윤리적인 기업문화 확산

윤리경영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와 어떻게 내부에서 윤리경영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윤리경영에 있어 ‘소통’의 중요성

소통은 단순히 기업성과를 높일 뿐 아니라 윤리경영을 확산시킴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고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 임직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데, 이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기 때문이다. 기업 내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윤리경영이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윤리경영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최근 국내외 동향

:: 국내 윤리경영 동향

■ 대기업-협력사 '윤리경영' 맞손

대기업과 협력사가 '함께하는 윤리경영'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전국경제인 연합회(이하 '전경련')가 9월 10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150여 명의 기업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2차 기업윤리학교ABC(Academy for Better Company)를 개최하였다. '제2차 기업윤리학교ABC'는 크게 윤리경영의 기획·실천·확산 방법에 대한 전문가들의 특별강연과 '함께하는 윤리경영'을 모범적으로 실천 중인 기업들의 사례 발표로 채워졌으며, 특히 사례 발표 세션은 윤리경영을 실제로 기획·추진한 기업 관계자들이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였다.

■ "윤리경영,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실천할 때"

윤경SM포럼(이하 윤경포럼)은 윤리적 기업문화 확산과 지속경영 실천을 논의하기 위해 2003년에 결성된 다자간 포럼으로, 발족 10년을 맞아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을 연구하는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윤리경영 확산에 나섰다. 9월 6일 김기찬 가톨릭대 교수(윤경포럼 공동대표)는 서울 중구에서 열린 모임에서 윤경포럼이 지난 10년 동안 국내에서 기반을 닦았으며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를 실천할 때라고 밝혔다.

■ "공정거래 인증기업 4곳 중 1곳 법 위반"

공정거래 인증을 받은 기업 4곳 중 1곳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은 지난 2001년 기업이 스스로 도입한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자율적으로 신청한 기업에 한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평가를 실시한다. 공정위 자료를 보면 전세계, 포스코강판, 삼성물산, 대림산업, 두산, KT, SK 네트워크, 현대자동차 등이 각각 2회씩 법을 어겨 관련 조치를 받았으며, GS 홈쇼핑은 4차례 시정명령을 받는 등 지난 4년간 공정거래 인증기업 가운데 총 16곳(16.8%)이 인증을 박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DJSI 지속가능지수 편입기업 4곳 늘어 총 23개

한국생산성본부는 9월 13일 '2013년 DJSI(Dow Jones Sustainability Index)' 평가결과 전세계 2,523개 평가대상 중 13.2%인 333개 기업이 DJSI 월드지수에 편입됐다고 밝혔다. 333개 기업 중 국내기업은 23개로 전년에 비해 4개 늘었다. DJSI는 전세계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 글로벌 평가 지수로, 경제적 측면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측면 등 종합적으로 기업을 평가한다. 생산성본부는 DJSI의 지수에 편입된 국내 기업의 수가 2008년에는 3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23개로 늘었다면서 국내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 해외 윤리경영 동향

■ 미대학들, 금융위기 이후 MBA과정에 윤리 과목 강화

미국 주요 대학 경영대학원 경영학 석사(MBA) 과정에 기업 윤리와 전문직 직업 윤리를 가르치는 과목이 필수 과목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서던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경영대학원 마셜스쿨은 필수 과목에 회계 윤리가 들어있으며, 뉴욕대 경영대학원 스텐스쿨은 리먼 사태 이후 필수 과목에 전문인의 직업 윤리 과목이 있다.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가 금융인의 윤리 의식 부재에서 비롯됐다고 경영대학원 교수들은 진단하였으며, 윤리 교육 강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 전세계에서 가장 일 하고 싶은 기업순위는?

Universum Global이 일하고 싶은 기업리스트 순위를 발표하였다. 전세계 유수 대학 출신 중, 경영학과 엔지니어링을 전공한 약 20여만 명의 학생들이 기업을 선정하였고, 전세계 12개국의 주요 경제권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결과 비즈니스와 엔지니어링 분야 모두 Google이 1위를 차지하였다. Universum의 CEO Petter Nylander는 "상위랭킹 기업들이 고용자로서 매력을 가지는 이유는 Y세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친근한 직무 환경, 그리고 유연한 근무 환경을 선호한다는 점이기도 하다"라고 말하였다.

■ 중국증시 '부패와의 전쟁' 승자와 패자는?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열풍이 거세지면서 중국과 홍콩증시에서 업종별로 명암이 엇갈릴 전망이다. 중국 사정당국은 최근 중국석유천연가스공사(CNPC)와 차회사인 페트로차이나 임원 4명을 부정부패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페트로차이나보다 이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둔 민간 중소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호화연회나 선물이 금지되면서 럭셔리제품 수요가 뚜렷하게 줄어든 반면, 인터넷기업들은 소비자들이 더 저렴한 엔터테인먼트 수단이나 제품을 찾고자 온라인으로 몰리면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WSJ은 전망한다.

■ 캐나다 외무장관, 알제리 방문 중 건설업계 부패 성토

캐나다의 '존 베어드' 외무장관은 알제리 방문 중, 캐나다 최대 건설업체인 'SNC-라발린사'의 부패 혐의(뇌물공여 등)와 관련하여 강력하게 성토했다. 알제리 국영 통신사에 따르면, 존 베어드 외무장관은 SNC-라발린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이 캐나다의 모든 기업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캐나다 기업들은 윤리문제를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그는 누구든 법을 어기면 법에 따라 심판받을 것이라고 트위터에 올렸고 이어서 SNC-라발린사는 현재 경영진이 바뀌고 사업 방식도 윤리적으로 변했다는 점을 알제리 당국에 알렸다는 말을 올렸다.



Monthly Business Ethics Briefs

☞ 1면에서 이어집니다.

결어

윤리경영 소통은 기업 내에서 윤리경영의 순환을 잘 되게 하여 윤리경영의 확산을 돕는 역할을 한다.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소통과 공감대 형성 없이는 윤리경영이라는 정신을 제대로 공유할 수 없으며 윤리경영으로 인한 효과 또한 기대하기 어렵다. 윤리경영을 기업문화로 자연스럽게 조성하고, 윤리경영을

확산시키고 정착시킴에 있어 기업 내부의 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며, 이를 위해 기업은 임직원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윤리경영정신을 공유하고 확산하여야 할 것이다.



현장을 찾아서

:: 한국가스안전공사

:: 안전 더하기, 행복 나누기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글로벌 가스안전 최고 전문기관이라는 비전하에 윤리 경영 마인드 정착 및 윤리경영제도·시스템의 지속적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신뢰경영, 기술경영, 소통경영, 미래경영이라는 경영방침을 정하고 지속가능경영 발전 강화를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CEO가 출제하는 FUN한 윤리퀴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CEO메시지를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등 SNS에 게시하여 공사 대내외 현황 및 윤리경영을 위한 공사의 자세 등에 대해 CEO와 임직원 간의 윤리교육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며, “CEO가 직접 출제하는 FUN한 윤리퀴즈”를 통해 매분기 윤리경영에 대한 CEO의 의지를 새롭게 표명하고 있다.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청렴 실천서약

또한, SNS를 통한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청렴 실천서약”으로, 임직원 및 공사 이해관계자와 함께하는 윤리청렴 실천서약을 통해 윤리의식 내재화와 공사 윤리청렴 의지를 대내외에 전파, 선도적 윤리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하였다. 이번 서약에 직원 1,039명, 외부이해관계자 816명 등 총 1,855명이 동참하였으며, 정부(권익위), 학계, 지역사회, 협력업체, 가스업계 등이 함께한 서약 동영상을 표출하여 임직원과 그 뜻을 같이 하였다.

CEO 말(言)아톤 / 사자(四字)소통 릴레이

“CEO 말(言)아톤”이라는 제목으로 본사 및 전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지사) 직원들과의 소통을 위해 약 3개월에 걸쳐 42개 부서 662명이 참여하여 사회공헌활동, 명절 안부인사, 가스안전사고 유의 등 공사의 다양한 현안사항 공유와 정서적 교감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사자소통 릴레이”를 통해 CEO가 스타트하여 감사, 각 임원별 해당 부서에서 4주 동안 46개부서, 585명이 참여하여 윤리청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릴레이 형식으로 공사 페이스북에 댓글을 다는 행사를 가졌다.



〈사자(四字)소통 릴레이〉

“즐기는 윤리, 함께하는 청렴 「제2회 윤리청렴 페스티벌」”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 및 실천을 유도하는 「윤리청렴 페스티벌」은 직원이 함께 참여하는 청렴연극(1차)을 시작으로 윤리경영가이드북 모바일웹 탑재(2차), 청렴너바나 사이버퀴즈(3차), 윤리청렴 UCC공모전(4차), 청렴 골든벨(5차)까지 7주에 걸쳐 추진되며, 전사적 윤리경영 실천활동을 통한 윤리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작년 골든벨 행사는 공사 직원 뿐 아니라 공사 외부이해관계자 등 총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관기관과 함께 출연한 지사에서 골든벨을 올리게 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며, 올해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윤리청렴 의지를 돈독히 하는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

단언컨대, 윤리청렴은 우리가 최고입니다.



〈제2회 윤리청렴 페스티벌〉

공익신고자 보호법

- 지난호에 이어서

:: 기업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운영과 공익침해 예방 강화 방안

기업의 공익신고 및 신고자보호 처리 체계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신고를 통하여 기업체에 접수가 된다.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에 필요한 경우 공익침해행위 제거 및 예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공익신고자가 요구하거나 동의한 경우에는 조사기관·수사기관·국민권익위원회 중 한 기관에 신고 사항을 송부하여 처리한다. 신고접수에서 조사, 시정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 전 과정을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책임자 지정 및 각 부서 간 신고처리 협조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기업 대표자 등의 공익신고 처리방법

● 분야별 공익침해행위

공익침해행위는 180개 법률 중 하나 이상의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벌칙¹⁾이나 행정처분의 대상²⁾에 해당되는 행위여야 한다. 따라서 5대 공익분야(국민의 건강, 국민의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을 위반하는 사항이 아니거나 위반하더라도 동 법률들에 의한 벌칙이나 행정처분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침해행위라고 볼 수 없다.

●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조치

공익침해행위의 제거는 이미 발생하였거나 진행 중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법령위반 등이 드러난 경우 즉각적인 시정 및 공익침해 행위자에 대한 처분 등의 조치를 말하며, 공익침해행위의 예방은 발생 원인을 분석하여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제반 조치를 말한다. 기업의 대표자 등은 이와 같은 공익침해행위의 제거 및 예방 등을 위한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기업의 공익침해 예방 강화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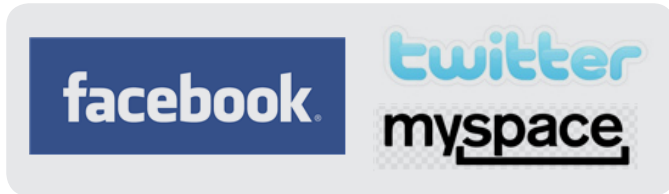
준법·윤리경영에 대한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각종 워크숍이나 매체를 활용하여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익신고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운영하여 공익신고를 유도한다.

- 1) 벌칙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형법」 제 41조(형의 종류)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사형 ②징역 ③금고 ④자격상실 ⑤자격정지 ⑥벌금 ⑦구류 ⑧과료 ⑨몰수 등 형사벌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말함
- 2) 행정처분의 대상이라 함은 180개 법률에서 그 위반에 대해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시정명령, 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처분의 대상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말함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기업감시

:: SNS, 현대의 신문고 역할을 하다!

SNS로 인해 새로운 소통의 장이 열리고 있다. 현대인의 생활품이 되어버린 SNS가 윤리경영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SNS가 기업 내부의 소통을 얼마나 활성화시키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기업과의 소통방식, 과거와 오늘

불과 10년 전만 해도 소통의 방식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소비자가 기업으로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전화를 걸거나 메일을 보내는 방식이 주를 이뤘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 연결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한 이러한 내용이 최종 담당부서에 도달하기까지는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렇다면 현대는 어떠할까? IT와 인터넷의 발달로 현재의 소비자들은 자유롭게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또한 최근 SNS의 발달은 소비자로 하여금 기업의 고위이사결정자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SNS, 기업의 신문고 역할을 하다!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SNS라는 공개적인 의사소통의 장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소리를 전달하고 기업들로 하여금 이를 시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SNS를 통해 다수의 사람들이 정보를 공유하게 되면서, SNS는 자연스럽게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SNS의 영향으로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 비윤리적인 경영을 지양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윤리적 경영으로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다.

SNS를 활용한 기업의 소통 사례

● 남양유업, 패자와 승자

최근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 퍼부은 욕설 파일이 인터넷에 공개

되어 물의를 일으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남양유업으로 하여금 123억원의 과징금을 물렸으며, 2013년 1월 피해대리점협의회는 강매를 이유로 남양유업을 공정위에 신고하였다. 남양유업은 허위유포 사실로 대리점을 고소하였지만, 유튜브 등에 욕설 파일이 공개되자 상황은 급변하였다. 남양유업은 결국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싣고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적인 사과의 입장을 밝혔다.

● KB금융, 소셜블로그 오픈...고객소통 앞장

KB금융그룹은 국내 금융 지주 최초로 소셜블로그 '케이비 스토리(KB Story)'를 오픈하고 고객과의 소통에 적극 나섰다. 'KB Story'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서도 접속이 가능하며 국민은행과 KB국민카드 등 전계열사의 SNS와 연계해 KB금융그룹의 소셜 허브(Hub)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회장님은 '트윗 중'

스타급 CEO 트위터리안(트위터 이용자)을 꼽으라면 단연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과 박용만 두산 회장을 들 수 있다. 정 부회장의 트위터는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의 고객들이 올린 불만이나 칭찬에 즉각 반응해 '민원 창구'라는 말을 들을 정도이며, 박 회장과 정 부회장은 한국PR기업협회가 PR전문가 4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홍보 잘하는 오너 경영인'에서 각각 1, 2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CEO SNS의 좋은 예

· 박용만 두산 회장 트위터(twitter, com/solarplang)

5월 두산그룹의 자금 악화 루머가 돌며 주가가 떨어지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라는 글 올렸고 추가 반등

·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트위터(twitter, com/yjchung68)

이마트 고객이 오렌지를 샀는데 상했다는 민원을 올리자 "죄송합니다. 다 환불해 드릴 겁니다." 라고 즉각 응대
신세계백화점 고객이 공중전화기가 없어 고생했다는 글을 올리자 "저희 컨시어지 직원에게 전화 한 통 쓰라고 말씀하심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응대

2013년 3차 청렴정책 민간기업 전수과정 안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민간기업의 자율적 윤리경영 노력을 지원하고자 현재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청렴성 진단 툴 및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내용과 사례 등 그동안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 시 : 2013. 10. 23(수), 09:00 ~ 17:00
- 장 소 : 푸르지오밸리(서울 대치동)
- 참여대상 : 민간기업 소속 임직원(25명 정도)
- 교육비 : 무료 ※ 단, 식비 · 교통비는 자체 부담
- 신청
 - 기간 : 2013. 10. 10(목) 까지 ※ 선착순 마감
 - 방법 :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E-mail 또는 Fax로 송부
 - ※ 참가신청 : 기업명, 부서명, 성명, 연락처 기재 요망
- 문의 : 민간협력담당관실 문옥인(oim2821@korea.kr, 360-2774 Fax 360-3532)



주요 프로그램

TOOL	주요 내용	적용 분야
기관 청렴도 측정모델 및 분석기법	● 기관 업무별 청렴도 진단 방법과 분석 ※ UN공공행정성 대상수상(2012.6), 태국 · 인니 등 전수	업무분야별 부패유발 요인 도출
고위공직자 청렴도 진단 모델 및 분석기법	●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성 진단과 분석	기관 인사 참고자료
행동강령 내용 및 사례분석	●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실천기준	직무관련성에 따른 구체적 행동기준 제시
신고자 보호제도	● 공익과 관련된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보호 분야 등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 보호	부패 유발요인 발굴과 조기차단
우수 청렴제도	● 청렴 확산을 위한 공공기관 우수사례 ※ 클린카드 제도 등	사규 개선에 우수청렴 제도사례 활용

※ 11월 중 4차 전수과정 운영 계획임(11월 26일 예정)

Q&A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

기업윤리 브리프스에서는 '윤리경영 One Point Lesson'을 통해 윤리경영업무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받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Q 윤리경영 교육을 수행하다보면 임직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A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의 동기부여와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제고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매년 같은 내용이 반복되거나 직무와 관련성이 낮은 일반적인 내용의 윤리경영 교육을 진행하다보면 임직원의 관심도와 흥미가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또한, 각 직무와 직급에 따른 윤리경영 이슈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맞는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임직원의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와 행사를 통해 임직원의 관심을 이끌어낼 수도 있습니다. 워크숍을 기획하여 임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하여 윤리경영 비전을 수립하거나 윤리경영 아젠다를 직접 도출하는 등 윤리경영 전략 수립과정에서 임직원들이 윤리경영에 스스로 참여한다면, 윤리경영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다 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모 그룹의 경우에는 교육용 윤리경영 드라마를 직접 제작해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특히, 그룹의 임직원들이 직접 배우로 출연하여, 임직원들의 윤리경영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으며, 임직원들로 하여금 기존 윤리경영 교육보다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웠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듯 임직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어 임직원 사이에서 윤리문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다면, 교육 효과를 보다 제고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Q 해외부패방지법 관련 사례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보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

A 미국의 FCPA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 해외부패방지법)는 기업의 외부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FCPA는 자국뿐만 아니라 국경을 벗어나 일어난 행위들에 대해서 제재를 하고 있어, 글로벌 마켓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수행하는 국내 기업들은 FCPA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표는 FCPA로 인하여 미국 법무성으로부터 과징금을 받은 기업 중 과징금의 액수가 큰 10개의 기업입니다. 10개의 기업 모두 해외입찰과 관련하여 외국공직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례이며, 지멘스의 경우 약 팔천억의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관련 회사의 고위 임원에게 형사 책임을 묻고 있는 사례도 발생하면서, 단순히 행정적인 처분뿐만 아니라 형사적인 책임까지 넓혀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기업은 컴플라이언스를 단순히 지켜야 한다는 당위 규범이 아닌 비즈니스 차원에서도 필수가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FCPA 사례-과징금 액수 기준

순위	기업	국가	금액	연도
1	Siemens	독일	US\$800million	2008
2	KBR Halliburton	미국	US\$579million	2009
3	BAE	영국	US\$400million	2010
4	Total	프랑스	US\$398million	2013
5	Snampromgetti Netherlands BVI	이탈리아	US\$365million	2010
6	Technip S.A.	프랑스	US\$338million	2010
7	JGC Corporation	일본	US\$219million	2011
8	Dalimer AG	독일	US\$185million	2010
9	Alcatel-Lucent	프랑스	US\$137million	2010
10	Magyar/Deutsche Telekom	헝가리/독일	US\$95million	2011

출처: 김정옥, (주)글락소스미스클라인

10월 국내외 행사를 소개합니다!

국 내

제1회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 시상식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사랑받는 경영의 확산을 위해 기존에 진행되던 '지속가능 경영대상'을 '대한민국 사랑받는기업 정부포상'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제1회 시상식을 기업가 정신주간에 '2013 해외 CSR 사업화 포럼'과 함께 개최할 예정

- 주최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 주관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대한상공회의소, (사)산업정책연구원, 한국표준협회, (사)지속경영학회
- 일시 : 2013년 10월 29일(화)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

KSA 추계CEO포럼

한국표준협회(KSA) 추계CEO포럼이 2014년을 준비하는 새로운 도약의 에너지를 제공하고자 'Healing Ocean In 여수'라는 테마로 개최될 예정이며, 창조경제와 리더십에 대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

- 주최 : 한국표준협회
- 일시 : 2013년 10월 14일(월)~16(수)
- 장소 : MVL호텔 여수

녹색산업 및 에너지효율 국제 컨퍼런스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자 국내외 명사를 모시고 국제 녹색산업 동향과 에너지효율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

- 주최 : UNIDO,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 : 에너지관리공단
- 일시 : 2013년 10월 18일(금)/ 10:00~17:30
- 장소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1층 그랜드볼룸

해 외

Commit Forum

The annual COMMIT!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지속가능성 드라이브, 비용 절감 및 자산 가치 향상을 위한 방법에 대한 통찰력을 공유할 예정

- 주최 : CR Magazine
- 일시 : 2013년 10월 8일(화)~9일(수)
- 장소 : New York Marriott Downtown, New York City, NY

Getting G4 sustainability reporting right for you and your stakeholder

본 MASTER CLASS에서는 기업이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GRI G4 프레임 워크에 대한 정보와 토론을 제공할 예정

- 주최 : Beyond Business / Do Sustainability
- 일시 : 2013년 10월 22일(화)
- 장소 : 76 Portland Place, London, W1B1NT

윤리경영 퀴즈

기업이 윤리경영을 추진하는데 있어, SNS 활용, 워크숍 등을 통해 임직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윤리적인 기업 문화를 구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 1) 윤리경영 자기진단 2) 윤리경영 소통 3) 내부통제 4) 청렴도 평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 (1만원 상당)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호 정답 : 2) 공익신고자 보호법**
- **정답 제출처(25일 까지) :** 국민권익위원회 기업윤리브리프스 담당자 문옥인(oim2821@korea.kr)
※ 정답과 함께 성함, 연락처, 주소(상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곳)를 적어 보내주십시오.
- **지난 호 퀴즈 정답자는 이희원님, 문서빈님, 임진섭님, 박도영님, 이길성님입니다.**
※ 보내주신 주소로 상품권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Yes 준비! Ok 윤리!

말하지 않으면



난폭운전을 하는 버스에 탄
승객은 모두 불안해 합니다.

모두가 그렇지만 선뜻 나서서
불만을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당사자는 모를 수 있습니다.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말하지 않으면 개선하지 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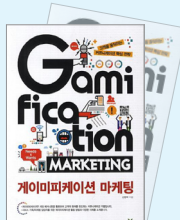
자료제공 : 교보생명 (그림 안중만)

새로운책 소개



1. 마케팅은 경영인가, 기술인가?

저자 : 조선e북 편집팀
출판 : 조선e북
출판일 : 2013년 08월 16일
정가 : 2,000원



2. 게이미피케이션 마케팅

고객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핵심 전략
저자 : 김형택
출판 : 영진닷컴
출판일 : 2013년 08월 30일
정가 : 15,000원



3. 절벽사회 대한민국은 지금 절벽에 서 있다

저자 : 고재학
출판 : 21세기북스
출판일 : 2013년 09월 06일
정가 : 15,000원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